



보도시점

2025. 12. 7. 11:00
12. 8. 조간

배포

2025.12.5.(금) 16:00

국립종자원, '종자 품질검정' 분야 국내최초 KOLAS 인정 획득!

-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으로 종자품질 검정의 신뢰성 향상 및 수출종자 국제 경쟁력 강화

국립종자원(원장 양주필) 종자검정연구센터가 지난 12월 4일 국내 최초로 종자 품질검정 분야 한국시험인정기구(KOLAS)*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.

* KOLAS(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): 국제기준(ISO/IEC 17025 등)에 따라 시험·교정기관의 품질경영체계와 기술능력을 평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가 인정제도

국립종자원의 종자 품질을 평가하는 검사장비, 절차, 전문인력 등이 국제표준(ISO/IEC 17025)*을 충족함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, 국립종자원에서 발급하는 종자의 발아율, 순도, 수분 등 주요 품질검정 시험 성적서의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.

* ISO/IEC 17025:2017: 시험소 및 교정소의 역량에 관한 국제표준으로, 시험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경영 및 기술 요건을 규정한 규격

종자검정연구센터는 이미 지난 2010년 국제종자검정협회(ISTA) 인증 실험실 자격을 획득, 국제종자분석증명서를 발행하며 국내 종자기업의 무역을 지원해 왔다. 그러나 최근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KOLAS 공인 성적서를 요구하는 등 종자품질검정 분야 KOLAS 인정획득 필요성이 대두되었다.

이에 국립종자원은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년 6개월간 KOLAS 인정 획득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. 인력의 전문성 강화, 시험환경 및 시설 보완, 시스템 표준화 등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에 국내 최초로 해당 분야의 국제공인 시험기관 자격을 얻게 되었다.

이번 KOLAS 인정 획득으로 국립종자원은 ISTA와 ISO/IEC 17025(KOLAS)라는 두 개의 국제 분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수준의 종자검정 기관으로 발돋움했다. KOLAS 인정으로 국내 종자 품질검정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, 수출 종자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번 인정을 계기로 종자검정연구센터는 국제 공동연구 확대와 새로운 종자 품질검정 기술 개발 등 종자 품질검정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국립종자원은 KOLAS 시험성적서 발급 관련 서식, 신청 절차·방법, 안내 자료 등 내부 준비과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고, 내년 1월 중 국립종자원 누리집 (www.seed.go.kr)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.

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“이번 KOLAS 인정은 우리나라 종자 품질검정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성과이며, 향후 종자검정 실험실의 기준이 될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과학적인 종자 품질검정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종자를 공급하고 수출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	책임자	센터장	신현주 (054-912-0220)
		담당자	농업연구사	김용수 (054-912-0224)